



정보 집중으로 업무효율성 극대화

기업의 정보 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최근 기업들은 산재돼 있는 정보 관리를 위해 문서 집중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보 공유에 대한 기반이 약했던 동부제철은 최근 ECM 솔루션의 도입으로 모든 정성적인 기업 문서들을 중앙에 관리하기 시작했다. 동부제철의 ECM 솔루션 구축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이종수 js_lee@ciokorea.com

동부제철이 지난 10월 ECM(Enterprise Contents Management) 솔루션을 구축 완료했다. 그동안 동부제철은 문서관리시스템이 있긴 했지만 자료실 게시판 수준이었으며,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는 상태였다. 특히 내부적으로 정보 공유에 대한 문화 자체가 형성돼 있지 않아 기업 내 정보 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마침 공장을 증설하는 등 신규 사업의 추진에 따라 더 많은 정보가 생성되는 상황에서 동부제철은 ECM 솔루션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은, 산재돼 있는 기업의 정성적인 모든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고, 필요할 때 마다 손쉽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부제철은 이번 솔루션의 도입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리스크 제거’,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프로젝트 개요

- 사업명 : 동부제철 통합문서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2010년 5월 ~ 9월
- 특징: 오피스, PDF 등 비정형 업무 문서의 통합하고 빠른 검색기능의 제공으로 업무 효율성 극대화 추진, 완성된 형태 솔루션 도입으로 시간·비용 절감
- 기대효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리스크 제거, 업무 효율성 극대화, 비용 절감 및 손실 최소화

동부제철의 사무직 직원들은 업무의 많은 부분을, 정보를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서를 생성, 수정 및 보고하는데 사용했는데, 이제는 검색을 통해 쉽게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용 절감 및 손실 최소화’를 기대효과로 꼽았다. 현재 도입 후 기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 정확한 ROI 효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향후 장기적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내부통제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현재 동부제철의 사무직 직원들은 업무의 많은 부분을 정보를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서를 생성, 수정 및 보고를 하는데 사용했는데, 이것을 검색을 통해 쉽게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업무 정보가 중앙에 관리되기 때문에 인수인계 과정도 쉽게 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비용절감 효과도 창출될 수 있다.

구축 기간 최소화

2010년 5월부터 시작된 이번 프로젝트는 9월말에 끝났다. 5개월의 사업기간에는 사전 분류체계 정비를 포함한 컨설팅 과정도 포함돼 있다. 동부제철은 본격적인 프로젝트에 앞서 현업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했고, 이것이 프로젝트를 원활히 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실제 구축 기간은 2개월 정도만 소요됐다. 이미 완성된 형태의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구축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비용 측면에서도 순수 개발 형태의 구축에 비해서 30% 이상 낮은 비용만 투입 됐으며, 이를 통해 TCO를 절감했다는 평이다.

동부제철은 솔루션 도입 과정에서 EDMS(Enterprise Doc-

ument Management System)에 대한 사용자들의 친숙함이 떨어지거나, 구축 후 사용률이 낮아질 것을 가장 고민했다.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와 평가가 이뤄졌고, 구축 후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검색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EDMS 안의 필요한 업무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 활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철강 산업에 대한 이해와 기존 자료의 활용 등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새로운 시스템으로 옮겨갈 수 있는 변화 관리의 유용성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도입했다.

사용자 친숙도 고려해

이번 동부제철에 도입된 솔루션은 IBM ECM 솔루션인 FileNet P8CM(Content Manager)이다. 이 솔루션은 MS-Office 및 탐색기와 직접 연결해 사용자에게 친숙한 환경을 제공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인터페이스의 표준화와 다양한 툴킷(Toolkit)을 통해 기존 동부제철의 그룹웨어, SSO(Single sign on), EP(Enterprise Portal) 등 내부 시스템과의 연계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었다.

향후 동부제철은 내부적인 연동 효과가 큰 시스템 순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동부제철 내부에 연동된 시스템은 사내 정보의 70% 이상이 담겨져 있는 그룹웨어, SSO, EP 정도뿐인데 향후 연동효과가 큰 시스템 순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렇게 모여진 정보를 바탕으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 KM과 정보 게시판은 정보를 모으고 체계화 시키는데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자산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ECM을 통해 정보를 단일화된 창구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진 정보를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모바일과의 연동도 검토 중에 있다. 모바일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업무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생산성

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철환 동부제철 IT기획팀장은 “철강분야 경험이 있고, 3rd party 솔루션 없이도 탐색기와 MS-Office를 직접 연동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도입 솔루션을 선정했다”며 “이를 통해 산재돼 있는 지적 자산을 이관하고 정보를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솔루션도 중요했지만, 제조와 철강분야의 문서 분류체계를 잘 반영하고 사용자에게 친숙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CIO**



INTERVIEW ▶ 정철환 동부제철 IT기획팀장

“사용자 활용도에 초점 맞췄다”

IBM 솔루션을 선택한 이유는?

최종적으로 두 개의 솔루션 사이에서 고민했는데, IBM의 솔루션이 기존 오피스 프로그램과 연동돼 사용자에게 친숙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을 고려하게 됐다. 그동안 EDMS 솔루션 구축이 탑 다운으로 이뤄져 시간이 지나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일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용자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을 가장 많이 고려했다. 물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IBM 솔루션이 적합했다.



쉽지 않았다. 특히 기존 분류체계가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이것을 철강업에 적합하도록 세부 카테고리 로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물론 이러한 사전 정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변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개인 PC에서 작업되는 문서들도 자발적으로 중앙 시스템에 집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일대일로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ECM 시스템의 이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실제 활용을 통한 경험이 늘어나면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자발적으로 확산된 시스템은 결코 사장되지 않을 것이다.

구축 시 힘들었던 점은?

문서 분류 체계를 다시 정비하면서 철강기업의 샘플을 얻고, 이것을 동부제철의 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이